

天君實錄에 關한 一考察

慶北大 人文大 金 光 淳

《目 次》	
I. 序 論	V. 文學的 價値
II. 作者는 鄭昌翼이 아니고 柳致球다	VI. 結 論
III. 作者의 生涯와 思想的 傾向	
IV. 登場人物의 樣相과 作家意識의 志向	

I. 序 論

天君實錄에 關해서는 筆者가 이미 天君小說研究¹⁾에서 論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天君實錄의 作品構造는 勿論, 天君實錄의 作者마저도 皮相的인 考察로 잘 못 穿鑿된 既往의 學說²⁾을 그대로 踏襲³⁾하고 있어 더욱 큰 誤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筆者는 天君實錄의 作者가 鄭昌翼이라는 學說이 誤謬임을 보다 具體的으로 穿鑿하여, 天君實錄의 作者를 小隱 柳致球임을 確認시키고, 그의 生涯와 思想的인 傾向을 考察한은 勿論, 登場人物의 樣相과 作家意識을 照明하고, 本小說의 文學的인 價値를 考察하고자 한다.

다만 筆者의 拙著인 天君小說研究 中の 天君實錄에 關한 部分的인 引用은 脚註를 달지 않고 引用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II. 作者는 鄭昌翼이 아니고 柳致球다

天君實錄의 作者에 對해 鄭昌翼 所作이라⁴⁾한 것은 皮相的인 考察에서 야기된 誤謬

1)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2) 朴魯春, 新資料 紹介「天君實錄」, 국어국문학 67(국어국문학회, 1975) p.129.

3) 金鉉龍, 李朝「天君」關係小說의 研究, 論文集 第四輯(祥明女子師範大學, 1975) p.103.
韓國文學編纂委員會: 韓國文學概說(螢雪出版社, 1980) p.238.

4) 朴魯春, 前掲書, p.129.

이다. 天君實錄의 作者에 對해 最初로 言及한 朴魯春님의 所述한 바를 살펴 보면,

天君實錄의 作者인 鄭昌翼에 關하여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일이 없었다. 鄭昌翼은 1818(純祖 17, 戊寅)年에 나서 1885(高宗 22, 乙酉)年 陰 11月 3日에 죽은 사람이다. 本貫은 淸州(西原)로, 淸州 鄭氏 克卿의 第 24代孫이며, 壬辰亂 때 義州 扈從으로 有名な 藥圃集의 著者인 藥圃 琢의 10代孫이고, 藥圃의 玄孫이며 黃海監司였던 牛川 玉의 高孫이다. 字는 釋範, 號는 雲北軒 또는 霞岩으로 1864(高宗 元年, 甲子)年에 成均生員이 되어.....⁵⁾

라고 하여 天君實錄의 作者를 秋毫의 의심도 없이 鄭昌翼으로 看倣하고 그의 家系와 生涯에 對해 紹介하였으며, 이어서 그 典據에 對해서도 다음과 같이 論述하고 있다.

이 作品 天君實錄은 遺墨謄草라는 作者의 親筆寫本에 收錄되어 楷書 手稿로 傳하고 있다. 作者의 手稿는 每張 11行, 每行 大略 28字 乃至 30字, 總 20張 半의 長篇이다. 이 作品의 製作年代에 關한 明記는 찾아볼 수 없으나 遺墨謄草의 表紙에 역시 作者의 親筆로 “歲乙丑冬書于韶上舊廬”라는 註記로 미루어, 1865(乙丑)年의 製作이 아닌가 한다. 이 해 前年인 1864(甲子)年은 作者가 登第하여 成均館에 在學할 때인데, 1865(乙丑)年 冬에 一時 歸鄉하여 製述한 것이 아닌가 推定하여 본다.⁶⁾

라고 하였다.

그러나, 前述한 바의 典據에는 여러 가지 問題點이 있지만, 특히 天君實錄이 收錄되어 있는 遺墨謄草라는 筆寫本에 對한 皮相的인 考證에서 誤謬를 犯한 것 같다.

遺墨謄草라는 筆寫本은 鄭昌翼의 宗家에 世傳되어 오는 것으로 朴魯春님이 빌어본 것⁷⁾과 筆者가 빌어본 것은 同一本으로, 첫 장 下端 右便에 霞岩 鄭昌翼의 藏書印이 찍혀 있고, 마지막에는 現在 所藏者이자 霞岩의 宗孫인 鄭奉鎭씨의 藏書印이 찍혀 있다. 그러고 보면, 遺墨謄草의 글씨는 表紙의 歲乙丑冬書于韶上舊廬라는 文句로 보아서 鄭昌翼의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朴魯春님은 여기에 실려 있는 모든 遺墨이 鄭昌翼과 관계되는 作品이라 보고, 作者, 年代의 記錄이 없는 天君實錄을 筆寫者인 鄭昌翼의 作品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가지 注意할 것은 遺墨謄草라는 筆寫本의 題目에 留意해야 한다는 것

5) ibid. p.129.

6) ibid. p.130.

7) 遺墨謄草는 1979年 8月 15日 筆者의 踏查 結果에 依하면, 鄭昌翼의 宗孫 鄭奉鎭(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6동 381-7)씨의 所藏本으로, 그의 말에 依하면 1974年 경에 朴魯春님에게 3個月 정도 이 책을 빌려준 일이 있다고 證言하였음. 이것을 資料로 하여 국어국문학 67호(국어국문학회, 1975)에 紹介한 것으로 보임.

種 類 (登載順)	年 代	作 者	受 取 人	備 考
書 翰	己卯 1759年 陰 12月 19日	蔡 濟 恭	鄭 玉 (1720~1799)(1694~1760)	
書 翰	己卯 1759年 閏 6月 17日	蔡 濟 恭	鄭 玉 (1720~1799)(1694~1760)	
書 翰	己卯 1759年 陰 10月 13日	蔡 濟 恭	鄭 玉 (1720~1799)(1694~1760)	
書 翰	庚辰 1760年 陰 7月 21日	洪 重 徵	鄭 玉 (1693~1772)(1694~1760)	牛川去後 洪重徵의 輓辭가 있음. 牛川은 1760年 陰 12月 4日卒.
書 翰	戊寅 1758年 陰 1月 6日	洪 重 徵	鄭 玉 (1693~1772)(1694~1760)	
書 翰	己卯 1759年 陰 9月 6日	洪 重 徵	鄭 玉 (1694~1760)(1694~1760)	
書 翰	庚辰 1760年 陰 1月 3日	金 朝 潤	鄭 玉 (? ~ ?)(1694~1760)	
書 翰	庚辰 1760年 陰 6月 2日	○ 廷 詰	鄭 玉 (? ~ ?)(1694~1760)	
書 翰	某 年 陰 9月 16日	李 東 標	鄭 玉 (1654~1700)(1694~1760)	
書 翰	戊寅 1758年 陰 9月 3日	李 象 靖	鄭 玉 (1710~1781)(1694~1760)	
書 翰	庚子 1780年 陰 10月 4日	李 象 靖	鄭 玉 (1710~1781)(1694~1760)	庚子(1780)는 庚辰의 誤. 인 듯. 書 信 內容은 藥圃公 追記件.
書 翰	己卯 1759年 陰 9月 9日	趙 明 鼎	鄭 玉 (1709~1779)(1694~1760)	
書 翰	己卯 1759年 陰 12月 8日	李 老 建	鄭 玉 (? ~ ?)(1694~1760)	
書 翰	戊寅 1758年 陰 6月 22日	洪 重 徵	鄭 玉 (1693~1772)(1694~1760)	
書 翰	壬申 1752年 陰 12月 6日	李 景 詰	鄭 玉 (? ~ ?)(1694~1760)	
書 翰	乙丑 1745年 陰 某月 某日	李 翼 元	鄭 玉 (? ~ ?)(1694~1760)	
書 翰	己卯 1759年 陰 1月 7日	○ 聖 鎔	鄭 玉 (? ~ ?)(1694~1760)	
書 翰	己卯 1759年 陰 8月 16日	○ 泰 齊	鄭 玉 (? ~ ?)(1694~1760)	
書 翰	己卯 1759年 陰 12月 27日	李 在 協	鄭 玉 (1731~1790)(1694~1760)	
書 翰	戊子 1708年 仲秋 初 四日	○ 采 ？	？	
書 翰	庚辰 1760年 陰 1月 20日	金 朝 潤	鄭 玉 (? ~ ?)(1694~1760)	
書 翰	壬申 1752年 陰 9月 29日	黃 晟	鄭 玉 (1689~1752)(1694~1760)	1751年 八月에 牛川(鄭玉)이 鏡城 判官을 除授받았으며 黃晟은 咸鏡 道觀察使가 되어 巡察使가 되어 직무상 의 書翰이 오고 갔음. 北道飢民 救 濟作으로 牛川集에도 書翰이 있음.
書 翰	壬申 1752年 陰 4月 3日	黃 晟	鄭 玉 (1689~1752)(1694~1760)	
書 翰	壬申 1752年 陰 4月 23日	黃 胤	鄭 玉 (1689~1752)(1694~1760)	
書 翰	庚辰 1760年 陰 2月 8日	金 常	鄭 玉 (? ~ ?)(1694~1760)	牛川集에 그의 이름이 보임 (年譜, p.15).
書 翰	癸酉 1753年 陰 8月 16日	柳 觀 茲	鄭 玉 (? ~ ?)(1694~1760)	牛川集에 그에게 보낸 書翰이 있음.
書 翰	癸酉 1753年 陰 8月 30日	李 宗 城	鄭 玉 (1692~1759)(1694~1760)	牛川이 保寧縣監 時 咸鏡道 巡察使 이던 李宗城과 접촉이 있었고(年譜 p.7) 그에게 준 書翰이 牛川集에 있음.
書 翰	甲寅 1734年 陰 9月 16日	俞 拓 基	鄭 玉 (1691~1767)(1694~1760)	이 해에 巡相 俞拓基와 접촉이 있 었음이 牛川集에 보임(年譜, p.4)
書 翰	甲寅 1734年 陰 10月 9日	俞 拓 基	鄭 玉 (1691~1767)(1694~1760)	또한 그에게 보낸 書翰도 牛川集에 있음.
書 翰	己卯 1759年 陰 8月 9日	俞 拓 基	鄭 玉 (1691~1767)(1694~1760)	

이다. 왜냐하면, 筆者 自身の 作品을 스스로 일컬어 遺墨이라 했겠느냐는 것과, 筆者 自身の 作品이라고 한다면 어찌 遺墨을 謄草한다고 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筆寫本은 주로 書翰文인 바, 이에 收錄되어 있는 作品에 對한 作者, 年代, 受取人〔書翰일 경우〕 등을 考證해 본 結果 다음과 같은 글이 收載되어 있다.

挽 辭	戊子 1768年	洪 奎 漢 (? ~ ?)	鄭玉 後孫	題: 黃海監司 鄭公挽.
天 君 實 錄	?	?	?	鄭氏宗家 所藏本.
書 翰	壬申 1752年 陰 1月 30日	徐 志 修 (1714~1768)	鄭 玉 (1694~1760)	牛川集에 그의 이름이 보임(年譜, p. 15, 卷二 p. 30).
書 翰	壬申 1752年 陰 5月 16日	徐 志 修 (1714~1768)	鄭 玉 (1694~1760)	

이상이 遺墨謄草에 收錄된 作品 全貌이다. 이들 遺墨을 謄草한 時期는 遺墨謄草의 表紙에 歲乙丑冬書于韶上舊廬라는 筆寫 年代로 보아 鄭昌翼이 48세(1865 A.D.) 때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作品이 書翰文이기 때문에 作者, 年代와 受取人이 分明한데, 이들 作品들은 거의 鄭昌翼의 高祖父인 鄭玉(牛川, 1694~1760 A.D.)에게 보낸 것이거나, 혹은 鄭玉의 아들에게 보낸 것들이고, 作者도 모두 鄭玉과 同時代의 사람이거나 약간 後代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遺墨謄草의 作品 가운데에서 作者, 年代가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天君實錄이다. 그렇다고 謄草한 사람을 곧 그 作品의 作者로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筆寫者는 遺墨을 謄草한 것이지, 創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天君實錄 以外の 作品 모두가 鄭昌翼의 高祖父나 祖父代 사람들의 것으로, 鄭昌翼은 이들 作品을 謄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天君實錄의 作者는 遺墨謄草의 筆寫者인 鄭昌翼이 아님이 分明하게 들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天君實錄의 作者는 누구일까? 이에 對해 여러 가지로 考究 探問한 結果, 最近 筆者는 水西集에 收錄되어 있는 天君實錄 跋⁸⁾을 發見했다. 여기에는 天君實錄의 作者가 小隱 柳致球임이 分明하게 記錄되어 있었다. 이를 살펴 보면

8) 右錄 即小隱先生所纂輯也 先生早陞國庠 退隱山林 講究治平之道莫要於治心 蓋心者 合理氣 統性情者也 主一身而其體虛靈 應萬事而其用微妙 而惟皇降衷之初 天君之名立焉 昔東岡金先生著天君傳 族先祖上舍石峽公編纂書 而傳恐太畧 書涉太煩 乃參互折衷 袁成一通 要之 晉乘楚机 同一義於魯之春秋也 軀殼之內 方寸之中 宗廟百官之富 岳瀆四方之會 南面垂拱之位 歷代治亂之迹 以至人物臧否 義利卽判 廓掃妖氛 恢復神州之功 開卷瞭然 如指諸掌 實聖學之指南 王道之龜鑑也 其有補於世教 曷云小哉 藏弄巾箱 已六十餘年 曾孫東燮 責淵根整陶陰謄淨本 以俟來後 謹受而寫訖 畧識其槩如右 以質于世之知言之君子 小隱諱致球 字來鳳 姓柳氏 以方谷兄子 親炙大壺之門 得聞心學之傳(水西集 卷之五 二十八 天君實錄 跋).

昔東岡金先生著天君傳 族先祖上舍石嵌公編編書 而傳恐太畧 書涉太煩 乃參互折衷 袁成一通……小隱譚致球 字來鳳 姓柳氏 以方谷兄子……⁹⁾

라고 하였으니, 이에 天君實錄의 作者는 小隱 柳致球임이 確證되었다.

뿐만 아니라, 天君實錄의 作者인 小隱은 東岡 金字顙의 天君傳이 너무 간략하고, 그의 族先祖 石嵌公이 쓴 軀書는 너무 번잡하여 兩者를 절충해서 天君實錄 한 편을 지었다고 하였으니, 天君實錄의 作者 뿐만 아니라, 創作의 動機까지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 다시 本稿에서 研究 臺本으로 하고 있는 天君實錄¹⁰⁾의 異本이라 할 수 있는 柳玟熙氏 所藏本 天君實錄¹¹⁾이 柳鐸一님의 配慮로 筆者에게 入手되었다. 兩本을 對比해 본 結果, 內容은 거의 같으나 다만 柳玟熙氏 所藏本의 作品 末尾에 天君實錄 跋이 더 添附되어 있었고, 跋文의 內容은 前述한 바 있는 水西集의 跋文¹²⁾ 內容과 같았다.

그 후에 前述한 柳玟熙氏의 所藏本 天君實錄이 柳正基¹³⁾氏에게 入手되었는데, 柳正基氏의 善處로 柳玟熙氏 所藏本 天君實錄을 考證할 수 있었는데, 역시 柳鐸一님의 寫眞本과 同一함을 確認하였다.

그래서, 柳玟熙氏의 所藏本 天君實錄이 發掘 考證됨에 따라서 天君實錄은 既往에 알려져 있는 鄭昌翼의 作品이 아니고, 小隱 柳致球의 著作임이 더욱 分明해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 小隱 柳致球의 天君實錄이 鄭昌翼이 筆寫한 遺墨膽草에 收錄되었을까?

霞岩 鄭昌翼은 藥圃 琢의 十代孫이고 黃海監司 牛川 鄭玉의 高孫으로 浮石 韶川 霞溪에 雲北軒을 짓고 林泉을 즐기며 詩文으로 述懷한 사람이다.¹⁴⁾ 그러니, 鄭昌翼은 그의 高祖父인 牛川과 관계되는 書翰文 中 牛川集에 빠진 것을 中心으로 遺墨들을 膽草했으리라 생각되며, 그러한 書翰들을 整理하는 가운데 鄭昌翼이 살고 있는 韶川과 가까운 水谷에 살았던¹⁵⁾ 小隱 柳致球의 作品 天君實錄이 이들 書翰과 함께 鄭氏

9) 水西集 卷之五 二十八 天君實錄 跋.

10) 여기서의 臺本이란 鄭昌翼이 膽草한 鄭奉鎮氏所藏本을 뜻함. 이를 天君小說研究(金光淳 著, 螢雪出版社, 1980)의 附錄으로 添尾하였고, 이를 다시 國譯하여 收錄하였음.

11) 慶北 安東郡 臨東面 水谷洞 柳玟熙氏 所藏本의 天君實錄을 複寫한 柳鐸一님의 所藏 寫眞本을 參考하였음.

12) 水西集 卷之五 二十八, 天君實錄 跋.

13) 서울시 중로구 와룡동 1번지에 거주.

14) 鄭昌翼 遺稿集(未刊, 筆寫本, 서울시 관악구 신림 6동 381-7 鄭奉鎮氏 所藏).

15) 慶北 安東郡 臨東面 水谷洞을 指稱하고, 水谷은 韶川과는 매우 가까운 거리다.

門中에 傳承되었는데, 鄭昌翼이 遺墨을 謄草하면서 함께 筆寫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天君實錄 兩本을 對照, 比較한 結果, 內容은 거의 같으나 文章 表現이나 文句의 出入 등 異本の 性質을 띠고 있는 點으로 보아, 天君實錄 創作 當時는 勿論, 後代까지 많은 愛讀者가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리고 末尾의 跋文이 붙어 있지 않은 鄭氏本 같은 天君實錄이 慶北 일원에 散在되어 傳承되었으리라 짐작되는데, 그 中の 하나가 鄭氏 門中에 流入되어 轉承되어 오던 것을 鄭昌翼이 謄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의 論議로 昨今까지 天君實錄의 作者가 霽岩 鄭昌翼으로 알려져 왔던 것은 誤謬였음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따라서 天君實錄의 作者는 小隱 柳致球임이 確證되었다.¹⁶⁾

Ⅲ. 作者의 生涯와 思想的 傾向

天君實錄의 作者인 柳致球는 字를 來鳳, 後日 고쳐서 鳴安(寧)이라 하였고, 號를 小隱이라 하였다. 本貫은 全州이니 麗末의 贈奉正大夫司憲府掌令完山伯 柳濕을 始祖로 하고 있으며, 小隱은 그의 18代孫이다. 이로부터 벼슬을 세습하게 된 全州 柳氏는 柳義孫에 이르러서 極盛하게 되었는데, 柳義孫은 號를 檜軒이라 하였고, 世宗 8年(1426 A.D.) 式年文科에 급제하여 藝文館檢閱을 거쳐 司憲府監察, 集賢殿修撰을 역임한 뒤 世宗 18年(1436 A.D.)에는 文科重試에 다시 及第하고, 直提學, 同副承旨를 지냈으며, 都承旨에 올랐다가 禮曹參判에 기용되었으나 병으로 사퇴하였다.

後日 世祖가 王位를 受禪하고 吏曹判書로 불렸으나 景泰年間(1450—1456 A.D.)을 湖南에서 隱居하여 나아가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 곳에서卒하였다.

嗣子가 없어 아우 執義 末孫의 아들로 養子를 삼으니, 諱가 季潼이요, 後日 尚瑞院正이 되었으며 都承旨에 贈職되었다. 그는 南秀文, 權琛과 함께 集賢 三先生의 稱이 있었으니, 이가 곧 小隱의 15代祖이다. 그리고 季潼의 아들 軾은 弘文館 典翰을 지냈고, 그의 아들 潤善은 引義를 지냈으나 벼슬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嶺南에 살게 되었다. 潤善의 아들 城은 贈 司僕寺正으로 復起를 남으니, 禮賓寺正을 지내고 左承旨에 贈職되었다. 그는 外叔 鶴峯 金誠一의 門下에서 修學하였으며, 壬辰倭亂 時에는 金誠一, 郭再祐 등과 함께 倡義하여 후일 그 功으로 다시 吏曹參判에 贈

16)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p. 89—94.

職되었다. 五代를 지나 應時는 賑濟의 功으로 工曹左郎에 除授되었고 그의 嗣子 萬迪은 文章으로 有名하였으니 小隱의 高祖이다.¹⁷⁾

이와 같이 簪纓이 끊이지 않은 鄉里 土豪의 家門을 배경으로 태어난 小隱은 朝鮮後期の 巨儒 大山 李象靖의 門下에서 學問의 正統을 터득한 東巖 柳長源의 高弟이던 雅谷 柳斗文의 嗣子이며, 慈親은 肅宗代의 性理學者인 密庵 李裁의 外玄孫인 驪州 李氏이다. 小隱의 生考 相文은 斗文의 아우이며 生妣는 漢陽 趙氏로 正祖 17年(1793 A.D.)에 安東 水谷里에서 小隱을 낳았다.

小隱은 자라서 伯父에게 入養되었는데 容貌가 順秀하고 眉目이 精明하였으며 聰明이 남달리 뛰어나 四歲에 人字를 가리키며, 이 字는 사람의 모양과 같으니, 故로 人字가 되지 않았음니까라고 하자 生考 處士公이 기특히 여겨 이르기를, 옛적에 너의 仲兄은 三歲에 中字를 알더니 너는 지금 人字를 아는구나 하였다. 公은 資質이 총명하고 민첩하여 어려서부터 들은 것이 있으면 곧 기억하였고, 못아이들과 더불어 畝豆를 벌여 놓고 단정히 앉아 祝을 誦讀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奇異하게 생각하게 했다¹⁸⁾고 한다.

11歲에 叔父 方谷 柳格文에게 受學하게 되었는데, 비록 古文이 難誦하였으나 거침없이 읽어 내려가 일찌기 막힌 바가 없었다. 方谷이 그 才를 시험하고자 中庸 한 권을 주어 다음 날 아침 돌아앉아 외우게 하였는데, 틀린 곳이 없자 기뻐하여 이르기를, 이 아이의 聰悟가 이와 같으니 나는 걱정이 없다고 하였다.

15歲되던 해에는 方谷이 臥病함에 公이 晝夜로 모시어 誠力을 다하여 간호하였으나, 方谷은 세상을 떠나면서 그를 불러 명하기를, 나는 平生 小學을 神明과 같이 尊信하였나니, 너도 모름지기 내 뜻을 體念하고 이 책을 읽어 亡失중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이로부터 公은 아픔을 참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는 가운데 家勢는 더욱 貧寒해져 나뭇잎을 따서 習字를 하였고, 螢火를 모아 책을 읽었다. 雅谷公은 族叔 龜岫翁 約文에게 受學하게 하였는데, 龜岫翁은 성품이 高亢하여 許하는 사람이 적었으나 每番 公을 찬양하며 깨우쳐 주었고, 述作이 있으면 반드시 公을 불러 함께 校正을 보았다¹⁹⁾고 한다.

이듬해인 16歲에 大埜 柳建休에게 請學의 글을 올렸는데 先生이 다시 書하여 이르

17) 以上 全州柳氏大同譜 卷二(全州柳氏思齊大同譜所, 1976) 參照.

18) 小隱集 卷四 墓誌銘.

19) ibid. 卷四 行狀.

기를, 이 나이에 이와 같은 見解를 가졌으니 대단히 칭찬할 만하다. 일찌기 叔父 方谷이 志業을 마치지 못한 것을 슬퍼하더니 그대를 얻어서 이와 같이 하니 叔父의 遺業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므로 公이 더욱 감격하여 方谷書 中の 要語를 써서 座右에 걸어놓고 스스로 경계하였다. 晩洲 權公 以復과 邁楚 徐公 活의 居하는 곳이 가까와 몇 번이나 請問하였던 바, 二公은 모두 畏友로 대우하였다. 일찌기 方谷先生의 遺文과 言行錄을 編輯하면서 壺谷先生에게 行狀을 請하자 先生은 遺文의 刊行을 칭찬하고 方谷先生의 餘韻을 失墜시키지 말 것을 분부하였다²⁰⁾고 한다.

大楚는 東巖의 門下에서 性理學에 沈潛하였으며, 前述한 바와 같이 東巖 柳長源은, 退陶書節要 10卷을 내고 小退溪라고까지 추존받은 大山 李象靖의 高弟였으니, 小隱은 실로 그 思想의 脈絡이 退溪에 根據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大楚의 學問이 小隱에게 미친 영향은 至大했으며, 小隱이 理學의 難點들을 大楚에게 質疑하여 그의 主張을 많이 흡수하였고,²¹⁾ 小隱集의 往復 書翰의 대부분이 大楚와의 學問討究였음은 이와 같은 사실을 如實히 말해 주고 있다.

22歲(1814 .A.D.)되던 해에 母親喪을 당하자 위로의 글을 다투어 보내왔으며, 이때부터 가난은 더욱 심하여졌다. 雅谷이 年老하니 公은 정성을 다하여 봉양하였으며, 혹 맛있는 음식을 대하면 반드시 손수 가지고 와서 올렸다.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밝기 전에 일어나 집안의 殘務를 처리함에 게으름이 없었으며, 논과 집을 다스림에 일찌기 때를 놓치지 않았고, 매년 여름이면 김을 매면서 발두렁에 紙筆을 놓아 두고 손으로는 매고 마음으로는 생각하여 마침내 한 이랑을 다 매면 글이 한 편 이루어졌으니, 그 勤苦함이 이와 같았다고 한다.

25歲(1817 A.D.)되던 해에 生家의 母親喪을 당하였고, 30歲(1822 A.D.)되던 해에 雅谷公이 卒하매 禮에 어그러짐이 없이 居喪하였다²²⁾고 한다.

35歲(純祖 27年, 1827 A.D.)되던 해에 司馬試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成均館에서 篤學하다가 不正과 腐敗로 일관되는 科擧에 실증을 느끼고²³⁾ 마침내 超然히 落鄕하니, 이는 世態의 混濁과 결탁할 수 없는 小隱의 介潔한 性品 탓이었다. 그의 學問과 才質을 아깝게 여긴 어떤 人士가 不正한 방법으로 그를 宦路로 내보내려 하였으나,

20) ibid. 卷四 行狀.

21) ibid. 卷一 書, 上大楚先生.

22) ibid. 卷四 行狀.

23) ibid. 卷四 墓碣銘.

一言之下에 이를 거절하였다는 逸話²⁴⁾만으로도 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공의 집은 山林嶺 아래에 있었으며, 山窩라는 室名과 小隱이라는 堂號를 내걸었으니 대개 小隱이라 함은 山林에 숨는다는 말이다. 雅谷公이 일찌기 늘 寸膠救渾之說로써 공을 가르쳤던 바, 公은 내가 언덕에 居하게 되었고, 先訓이 또한 이와 같다고는 그 室名을 膠窩라 하고 堂名을 救渾이라 하여 堂名을 짓게 된 연유를 밝힌 글을 지어 스스로 勉勵하였다. 이에 族兄 定齋先生이 銘詩를 지어 함께 학문에 진력할 것을 청하였다.²⁵⁾

이후 그는 오직 학문에 전념하여 익힌 바를 躬行함에 힘썼으며, 이 시기에 中庸과 大學 二書를 특히 熟讀하여 讀至萬遍²⁶⁾이라는 기록까지 보이는 바, 晩年에는 더욱 학문을 篤實히 하여 寒暑에도 이를 그치지 않아 或人이 묻기를, 老齡에 어찌 이같이 刻苦하는가 하니, 익힌 것이 난숙하여지면 그만 둘 것이라고 하였다²⁷⁾ 한다.

純祖 34年(1834 A.D.)에는 그의 族祖이자 스승이던 大槓가 歿하자 祭文을 지어 哀痛함을 表하고 遺事를 撰하여 高德을 기리었으며, 뒷일을 처리함에 曲盡히 하였다. 이로부터 小隱은 當代의 巨儒로 士林의 推仰을 받던 族兄 定齋 柳致明과 더불어 밤을 새워가며 學問을 討究하여 定齋로 하여금 聰明과 才調가 우리 무리들이 可히 미칠 바가 아니라는 歎賞을 하게 하였고, 또한 定齋는 후일 小隱의 箴規之言이 듣는 사람들을 心服하게 한다²⁸⁾고 하였다.

小隱은 늘 疴症의 증세가 있었는데 哲宗 5年(1854. A.D.) 甲寅 春에 증세가 더욱 심하여졌으나 持守의 工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던 바,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이해 7월 10일 두 아들에게 讀書로써 修身하여 家範을 失墜하지 말라는 遺言을 남기고 考終하니, 享年 72세로서 墓는 山林嶺 동쪽 기슭에 있다. 小隱은 夫人 漢陽趙氏와의 사이에 二男四女를 두었으며, 次男을 大槓의 孫인 致思가 無子하자 入養시켜 尊慕하는 스승 大槓의 香火가 끊이지 않게 하였다.

小隱의 族弟 致堉는 行狀을 지었는데 그의 人品을 일러, 公의 天稟은 勁固하고 재주가 穎敏하였으며 臂志는 豁達하였고 항상 禮로써 몸을 단속하였으며, 氣節은 高亢하고 彝倫에 항상 勉力하였으며, 몸은 비록 羸弱하였으나 心志가 確固하고 걸으로는

24) 有惜公淹滯者 導以關節 公正色爲不聞(小隱集 卷四 墓誌銘).

25) 小隱集 卷四 行狀.

26) 庸學二書, 讀至萬遍(小隱集 卷四 墓誌銘).

27) 小隱集 卷四 行狀.

28) 君箴規之言 可使聽者心服 聰明才調 又非吾輩可及(小隱集 卷三 祭文).

柔巽하였지만 行動은 剛果하였으며 清廉한 性品은 名利를 가까이하지 않았고 곧은 절개는 物欲을 멀리 하였다고 한다. 또, 그의 學問을 서술하여 이르기를, 기억력이 남달리 뛰어나서 경전과 百家語에 정통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周子, 程子, 張子, 朱子의 학문은 물론이고, 우리 東儒의 格言들도 公의 말처럼 외웠다²⁹⁾고 기록하고 있다.

小隱은 어려서부터 經典을 갖추고 가난속에서도 學問에 종사하여 계속 노력하였으며, 閑暇하게 될 때는 사람과 접하여 답소하며 스스로 常類와 섞이었으나 義理에 있어서는 萬牛難回의 勇猛이 있었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자 朝夕으로 반드시 각 집의 굴뚝을 살펴 밥을 짓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참지 못하고 도와 주었다³⁰⁾고 한다. 또 從弟가 貧寒하여 장가 들지 못하자 며느리에게 私財가 있음을 알고 도울 것을 권하여 成婚하게 하였으며, 堂姪 勉欽이 홀아비로서 자식이 없어 의지할 데가 없자 극력 救恤하여 再妻를 맞이하게 하였고, 公의 外家가 家業이 蕩敗하여지매 公이 財物을 내어 香火가 끊이지 않게 하였으며, 한때 橫厄을 만나 그 禍를 장차 예측할 수 없는 급한 때에 公은 일을 조리있게 처리하여 奸民猾吏로 하여금 감히 말을 못하게 하여 열흘만에 일을 해결하기도 했다. 하루는 村人이 告하기를, 老萊山에 한 어린 아이가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다한즉, 公이 이를 가엾게 여기고 몸소 入山하여 그 시체를 묻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길렀다. 며느리가 계집종을 사서 수 년이 지났는데 홀연히 본 주인이 찾아와서 종을 찾자 公은 그 曲直을 따지지 않고 종에게 곧 돌아갈 것을 命했다. 멀리서 客이 公의 文名을 듣고 찾아와서 詩를 부탁하자 公이 그의 웃이 헤어진 것을 보고 웃으며 이르기를, 그대의 의복을 보니 詩보다 더 급하다 하며 웃을 벗어 주었다.

公은 山中에 居하면서 해마다 각종의 약초를 캐서 쌓아두고 이르기를, 나는 가난하여 사람을 도울 수가 없으니, 약물을 쌓아 두었다가 사람을 도우려 한다³¹⁾고 하였다.

이와 같이 小隱은 博學多識의 선비일 뿐만 아니라 배운 바를 實踐躬行하기에 더욱 盡力하였으니, 일찌기 이르기를, 우리 선비의 학문은 마땅히 實踐하는 것을 귀히 여길 바이니 이치를 통달했을지라도 實行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을 따름이

29) 小隱集 卷四 行狀.

30) ibid. 卷四 行狀.

31) ibid. 卷四 行狀.

다³²⁾라고 하였으며, 道가 高遠한 곳에 있지 않음을 말하여 마음은 無限量한 것으로 君子の 학문은 모름지기 그 量을 채우는 것이니, 그 量을 채우고자 하면 무릇 가까이 있는 말이나 지극히 근소한 물건이라도 잘 살펴야 하는 것으로 千丈의 巨木일지라도 좀이 스며들면 썩게 마련이고, 百仞의 독이라도 개미구멍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것이니, 미미한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이 이와 같다³³⁾고 하였다.

그는 혹 독서하다가 틈이 생기면 湛然히 묵좌하였는데 일저기 弟子들에게 이르기를,

고요한 밤 澄寂할 때면, 가히 大本이 未發한 때의 氣象을 證驗할 수 있다³⁴⁾고 하였으며, 夜坐란 題下의 詩에서는 그의 心像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니,

雪明虛室白
火宿小爐紅
萬象無兆朕
依然露本衷³⁵⁾

라고 읊고 있다. 여기서 눈(雪)은 곧 道를 뜻하고 虛室白은 곧 빈방에 앉아 생각하면 흰빛 즉 밝은 道가 보인다는 뜻이다. 불이 달다(火宿)는 것은 道를 鍛鍊한다는 말이고, 작은 화로가 붉게 비친다(小爐紅)는 것은 道의 本體가 드러남을 뜻한다. 그러니, 눈이 밝은 것이나 불이 달다는 것은 모두 道를 찾는다는 것이니, 起聯과 承聯은 마음을 밝혀 性을 찾는 心法의 一斷을 말한 것으로 明心見性의 뜻이다. 곧 佛教에서 말하는 見性成佛의 意味와도 相通하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면, 森羅萬象은 아무런 兆朕도 없이 依然히 本心이 드러난다는 말이다. 그러니 學問을 鍛鍊하여 本心을 찾으려는 作者의 心像은 當時 空理空論에 치우친 性理學者와는 달리 明心見性하면 致良知한다는 知行合一의 陽明學에 가까운 것이다. 이와 같은 小隱의 態度를 엿볼 수 있는 作品에서 그의 心經正學을 알 수 있으니, 이러한 思想觀이 곧 天君實錄에 잘 나타나 있다.

小隱은 性理學者이면서 實踐躬行하기에 盡力을 다하여 선비의 學問이 理論에만 치우친 것을 개탄하고 實踐하는 것을 貴하게 여겨 비록 理致를 깨우쳤다 해도 實行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창하여 선비의 學은 知行合一에 있음을 보이고 있어, 空論에 빠졌던 性理學에만 치우친 當時 儒生과는 달리 實踐을 重視하는

32) 吾儒之學 當以躬行爲貴 至於騰理寄命 非爲己也(小隱集 卷四 行狀).

33) 心無限量 君子之學 充其量而已 欲充其量 須是好察邇言 克勤小物 千丈之木 以蠹蝕而腐 百仞之堤 以蟻穴而壞 微之不可忽 有如是矣(小隱集 卷四 行狀).

34) 靜夜澄寂 若可驗大本未發時氣象(小隱集 卷四 行狀).

35) 小隱集 卷一 詩.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는 理氣論에 對해서도 見解를 밝히고 있으니, 大抵 理는 太極이요, 氣는 陰陽이라. 理가 없으면 氣가 근거할 바가 없으며, 氣가 없으면 理가 걸릴 바가 없어지니, 섞여서 가히 나눌 수가 없다. 그러나, 理는 純한 것이요 氣는 雜한 것이며, 氣는 形이 있는 것이요, 理는 자취가 없으므로, 理는 다만 理일 따름이요, 氣는 다만 氣일 따름이니, 일찌기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른바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 하나이다³⁶⁾라고 한 것으로 보면 退溪의 理氣二元論을 肯定하고 있으며, 일찌기 그의 스승 大槲翁이 四端은 理發이고 七情은 氣發이라고 하는데, 단지 喜·怒·哀·樂만을 말할 때도 氣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對하여 答하기를,

七情만을 들어 말할 때에 理發과 氣發이 섞여 있으니, 오직 性發이라 할 수 있을 지언정 氣發이라 할 수는 없다. 만약 氣發이라 한다면 理發과 對立되기 때문이다.³⁷⁾라고 言及하고 있으니, 여기서 그의 四七論에 對한 見解를 살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性理學者였던 小隱은 山林에 隱居하며 儒家의 道德主義的인 態度로 一貫하였으므로 文章을 다듬는 것을 꺼렸다³⁸⁾고 하며, 이러한 관계로 그의 遺稿인 小隱集은 二冊四卷으로 대부분이 輓詩와 誄辭, 祭文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³⁹⁾

Ⅳ. 登場人物의 樣相과 作者意識의 志向

天君實錄은 天君傳의 構造에다가 軀書에 出現되는 身體의 一部 名稱과 또한 心性論에 등장되는 用語들을 상당수 借用해서 이를 擬人하여 作中 人物로 등장시키고 있다.

天君實錄도 天君小說의 一種이므로 主人公이 心의 擬人인 天君이며, 주인공 외에 天君小說의 嚆矢인 天君傳에서 보이지 않은 많은 人物들이 등장되어 다소 복잡한 構造를 지니고 있는데, 天君 아래의 忠臣型 人物과 奸臣型 人物의 對立, 葛藤으로 事件이 展開된다는 點과 作品의 全般的인 構造와 作家意識⁴⁰⁾으로 보아 天君小說의 典型的인 作品임을 볼 수 있다.

36) ibid. 卷二 山窩雜錄.

37) ibid. 卷二 山窩雜錄.

38) ibid. 卷四 行狀.

39)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p.94-102.

40) ibid. p.174.

作品 속에 등장되는 人物부터 보면, 主人公 天君이 등장한다. 여기서 天君이란 心을 擬人하여 主人公으로 삼았다. 心을 天君이라고 한 것은 荀子 天論篇에서 처음 보이는데, 心은 中虛에 居하면서 以治五官하니 대저 이를 天君이라 일컫는다⁴¹⁾고 하였고, 范浚도 그의 心箴에서 心에 對하여 君子가 誠을 지녀서 능히 생각하고 능히 공경하면 天君은 泰然하고 百體가 命令을 따른다⁴²⁾고 하였다. 이 외에 荀子의 解蔽篇에서도 心者는 形之君으로 神明의 主다⁴³⁾고 하였고, 淮南子의 泰族訓에는 心者는 身의 本이요 身者는 國의 本이다⁴⁴⁾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原道訓篇에서도 心者는 五臟의 主다⁴⁵⁾고 하였으니, 心은 곧 形體를 支配하는 君主요, 肉身이 存在하는 基本이며, 精神이 作用하는 主體인 것으로 性과 情을 統攝하는 上位概念으로서의 天君이란 뜻이다.

마찬가지로 天君實錄을 爲始한 天君小說에서도 天君은 그 맡은 바 직무가 君主의 役割을 하는 主人公으로 등장된다.⁴⁶⁾ 天君實錄의 主人公도 天君小說의 嚆矢인 天君傳과 마찬가지로 心의 擬人인 天君이며, 天君實錄은 天君傳에서 論議되지 않은 많은 人物들이 등장되어 다소 복잡한 構造를 지니고 있음이 다를 뿐, 天君 아래에 忠臣型 人物과 奸臣型 人物의 對立, 葛藤으로 事件이 展開된다는 點과 作品의 全般的인 構造와 作家意識은 거의 一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⁴⁷⁾

天君實錄의 天君은 天上界에서 下降한 天君傳의 天君과는 달리 地上에서 가장 有能한 人材를 皇帝가 골라 天君으로 即位시킨 것이다. 이는 天君傳이 16世紀 小說로서 非現實의임에 反해서 天君實錄은 19世紀의 小說로서 可能的인 世界의 描寫로서 어느 정도의 合理性을 지녀야 한다는 作者 意識이 作用한 데서 온 것으로 보인다.

天君實錄의 天君은 寅會의 半인 五千四百年 攝提의 해에 태어나서 眞宰(上帝의 帝相)가 上帝에게 천거하여 天君으로 封해 진다. 그리고, 天君의 姓은 丹이요, 이름은 元이며, 字는 守靈이라 하여 자세한 說明까지 붙이고 있다. 여기서 天君의 姓을 丹이라 한 것은 丹心에서 나온 말이며, 이름을 元이라 한 것은 天君, 즉 心이 으뜸간다는 뜻을 지닌 데서 由來했고, 字를 守靈이라 한 것은 心靈을 지킨다는 뜻에서 나온

41) 心居中虛 以治五官 夫是之謂天君(荀子, 天論篇).

42) 君子存誠 克念克敬 天君泰然 百體從令(范浚, 心箴).

43) 心者形之君也 而神明之主也 出令而無所受令 自禁也(荀子, 解蔽篇).

44) 心者身之本也 身者國之本也(淮南子, 泰族訓篇).

45) 心者五臟之主也(淮南子, 原道訓篇).

46)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 108.

47)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 174.

말이다. 天君實錄의 天君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天君은 날 때부터 어질기가 하늘과 같고, 앞이 神과 같아 上古의 前이나 萬古의 後에라도 通徹되지 않음이 없어 活物이라 하였으며, 即位하자 腔子裡(뱃속)를 封土로 받았다. 上帝의 命을 받고 混沌之根에 돌아와서 都邑을 정하고 宮室을 창립하게 하며, 六府를 차리고 火德으로 王이 되어 赤色을崇尚하고 數는 七로써 紀를 삼았다. 太初 元年에 神明之舍(神明은 하늘과 땅의 神靈, 즉 사람의 마음, 정신, 天君의 집)에 나와서 採聽官(귀), 監察官(눈), 天關守(입), 玄關守(호흡기), 人關職(팔과 손), 地關職(발과 다리) 등에게 分職하여 恭命하게 하고, 博愛한 主人翁에게는 仁·義·禮·智의 四端으로 각각 그 職을 命하여 職分을 다하게 하며, 太平의 氣象이 있어 主人翁에게 그 功을 치하하고 和平함을 노래로 지어 부르게 한다.

그 후 3年 뒤에 天君이 七情을 만나 絳宮 옆 一片地에 살도록 허락해 주고, 또 3年 뒤 形氣 中 禾么公이 와서 百姓이 되길 원하여 天君은 그를 가까이 한다. 在位 15年 에는 文治에 뜻을 두어 主人翁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니 신하들이 임금의 뜻을 迷亂하게 하여, 天君이 事理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자 天地가 온갖 異變을 보였으나 天君은 깨닫지 못하고 國宮을 떠나 周行四顧하였다. 奸臣인 禾么와 禾刀가 降伏하라고 進說하매, 유혹되어 이를 받아들이자 天君은 困境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우연히 主人翁을 만나 지난 일을 뉘우치고 主人翁의 가르침을 모두 따르겠다고 다짐 하니, 主人翁이 志帥를 천거하며 天君이 志帥에게 氣卒을 주면서 盜賊을 토벌하도록 하니 志帥가 이를 행한다. 天君이 勝戰 消息을 듣고 大喜하여 그들을 위로하면서 誠伯의 벼슬과 赤縣 千里의 땅을 封土로 내리고 端正히 上에 尊臨하니, 百體가 順從하여 太平을 되찾게 된다. 이처럼 天君實錄의 天君은 매우 복잡한 주위 人物과 접촉을 갖게 되는 地上界의 人物이다.

그리고, 天君의 아래에 忠臣型和 奸臣型 人物이 있어 兩型이 팽팽한 싸움을 계속 하는 事件이 展開되는데, 忠臣型 人物부터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主人翁이 등장하는데, 이는 心經의 心爲萬物之主⁴⁸⁾에서 나온 말로 心이 곧 萬物의 主人이란 뜻의 擬人으로, 天君의 德을 본받아 仁·義·禮·智의 四端으로 각각 그 職分을 다하여 太平의 氣象을 지녀서 天君으로부터 그 功을 치하받는다. 또 天君이 文治에 빠져드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天君이 七情大夫와 가까이 하여 타락되어 가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 저지했으나 듣지 않음에 탄식하고 文治의 過誤와 中國觀遊

48) 心爲萬物之主(心經, 近思錄).
程子曰 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二程全書).

의 잘못을 諫하며, 禾么, 禾刀를 경계하고 用人의 法度를 天君께 말하여 天君이 잘못을 뉘우치게 하여 困境에 처한 天君을 求하였다. 또 畿內에 머물면서 六官의 스승이 되어 天君께 改過遷善하여 維新할 것을 주장하였고, 志帥를 천거하여 도적을 쫓게 하며, 誠意關을 증축할 때 工事を 管掌하기도 한 忠臣型 人物 中에서도 가장 중요한 人物이다.⁴⁹⁾

惺惺子는 惺惺의 擬人으로, 마음의 환한 모양, 똑똑한 모양, 혹은 분명한 모양을 뜻함이니,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 혹은 分明한 사람이란 뜻이다. 康熙字典에서는 惺字에 對해 靜 가운데도 昧하지 않은 것을 가리켜 惺이라 한다⁵⁰⁾고 하였고, 上蔡語錄에는 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常惺惺法⁵¹⁾을 주장하였으며, 劉基의 醒齋銘에는, 밝음은 惺惺에서 생기고 심란함은 冥冥에서 생긴다⁵²⁾고 한 것 등으로 보면 惺惺子는 곧 忠臣型의 人物로서 前述한 바 謝上蔡가 敬의 意味를 說明하면서 常惺惺法을 주장하던 惺惺의 擬人으로, 이는 天君傳의 太宰 敬과 같은 意味를 지닌 人物이다.⁵³⁾

志帥는 志의 擬人으로 主人翁에 依하여 天君에게 천거된 人物로서, 天君傳에서는 大將軍 克己란 이름으로 등장하나, 같은 類型의 人物이고, 天君演義를 비롯한 다른 天君小說에서는 大將軍 志帥로 擬人되고 있다. 天君實錄에서는 志帥가 盜賊을 討伐하라는 天君의 부탁을 받고 大將軍이 되어 氣卒을 거느리고, 善關, 夢關, 人鬼關에서 차례로 싸워 이긴 뒤에 誠意關 머리에서 惺惺子를 시켜 敵에게 檄文을 보낸다. 그리고, 天君의 命을 받고 옛 터전에서 賊을 막기 위해 誠意關을 증축하기도 하고, 天君으로부터 誠伯의 벼슬과 赤縣 千里 땅을 封土로 받은 忠直한 武將이다.

奸臣型의 主要人物로서 禾么부터 살펴보면, 禾么의么는 么[작을 요]字의 俗字로 곧 私의 破字이며, 私私로운 小人, 보잘것 없는 간사한 사람의 意味를 擬人한 것인데, 天君이 藏疾之德과 納汚之量이 있음을 들어 天君의 百姓되기를 원함에 이를 허락하니, 天君은 갈수록 文治를 더해가 自制하지 못하게 되고, 또 禾么가 나서서 人生無常을 아뢰고 禾刀를 천거하면서 豪華生活을 원하는 등 天君에게 옳지 못한 일만 꾸민다. 그래서, 天君이 事理를 分別하지 못해 위태롭게 됨에 天地가 꾸짖어 온갖 異變을 보이니, 이를 알지 못하고 禾刀와 함께 天君을 더욱 困境에 처하도록 하는 人物이다.

49)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p. 174—176.

50) 靜中不昧曰惺 星夜明 故惺(康熙字典).

51) 敬是常惺惺法(上蔡語錄).

52) 昭昭生于惺惺 憤憤生于冥冥(劉基, 醒齋銘).

53)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p. 134—135.

禾刀는 利의 破字로서, 利를 추구하는 小人을 뜻하는 意味를 擬人한 것으로 禾么와 함께 天君을 困境에 처하도록 하는 人物이다.

女戎은 女子로 因한 災殃, 女禍를 擬人한 것이며, 여기서는 陰氣가 있는 야만적인 女子로 등장하는 妖邪한 爲人이다.

麴氏兄弟는 술의 擬人으로, 여기서 麴은 곧 麴이니, 麴氏 兄弟는 곧 술을 意味하며, 愁城誌의 麴將軍과 같은 뜻의 人物인데, 靑州의 도적으로 女戎과 通使交兵하여 天君을 手足도 쓸 수 없게 하고 소리와 色으로 天性을 잃어버리도록 하여 天君을 더욱 괴롭히는 人物이다.

이 외에도 天君實錄에 등장하는 人物로는, 天君을 임명한 上帝가 있고, 活物을 上帝에게 추천한 眞宰가 있고, 黃老 즉 黃帝와 老子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學說 즉 道家의 學說을 擬人한 黃老君 등이 있다.

그리고 喜·怒·哀·樂·愛·惡·欲의 七情을 擬人한 七情大夫와 靑州 出身으로, 麴氏의 長子인 醇과 次子인 醪, 귀의 擬人인 採聽官과 눈의 擬人인 監察官, 입의 擬人인 天關守, 호흡기의 擬人인 玄關守, 팔과 손의 擬人인 人關職, 발과 다리의 擬人인 地關職 등 매우 많은 人物들이 등장되고 있다.⁵⁴⁾

이상과 같이 主人公인 天君을 中心으로 忠臣型 人物과 奸臣型 人物, 즉 兩型の 對立, 葛藤으로 事件이 展開되는데, 忠臣型의 人物이 奸臣型의 人物을 制御하여 奸臣型의 人物이 天君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여 天君을 잘 보좌하면, 天君의 나라는 和平해지나, 奸臣型의 人物이 忠臣型의 人物을 도리어 制御하여 天君이 奸臣型의 人物과 가까이 지내면, 天君은 그들에게 유혹되어 困境에 처해 지고, 따라서 天君의 나라는 和平을 잃게 됨은 勿論, 天君의 나라에는 奸臣輩들이 극성을 떨게 되고, 兩型 人物의 치열한 싸움 때문에 天君의 나라에는 큰 난리가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두 類型 人物끼리의 權力 다툼의 樣相은 治亂治世의 一方法을 나타내고자 하는 作家의 意識構造를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다가 다시 忠臣型 人物과 奸臣型 人物의 對立·葛藤은 忠臣型 人物이 奸臣型 人物들을 制御함으로써 天君은 제자리에 定座하게 되고, 따라서 天君의 나라는 和平을 되찾게 되는데, 이러한 作品 構造는 性情의 對立·葛藤을 교묘히 擬人하여 心經의 論理를 흥미로운 小說의 構造에다 投影한 것으로서, 天君이 곧 心에 譬喻되었으니, 君子로서의 마음가지는 方法, 즉 心經正學을 說破하려는 作者 意識의 志向으로 理解될 수 있다.

54)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p. 176—177.

V. 文學的 價值

우리 나라에는 朱子學이 展開된 이후부터 道文一致思想이 當時의 文壇을 지배하였는데, 天君實錄을 비롯한 天君小說의 作者들도 讀者들에게 性理學的인 心經正學을 工夫시키기 위한 方便의 하나로써 天君小說을 創作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小說 그 自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心學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文學的인 立場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作者의 意圖가 아니라 作品 自體의 結果이다. 또한 天君實錄을 爲始한 天君小說의 대부분의 內容이 心經의 內容과 根本的으로서는 一致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 경우에서도 역시 중요한 것은 內容의 根本的인 一致가 아니라 形象化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現象들이라 할 수 있다.

作者의 意圖와 內容의 基本的인 一致를 들어 文學的 價値를 부정한다면, 이는 皮相的인 觀察에 얽매인 短見이요, 文學 作品 自體를 보는 눈이 既往의 觀念 때문에 흐려져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몇 가지 點을 念頭에 두고 天君實錄의 文學的인 價値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心性을 擬人하여 小說의 形式으로 轉換하였다는 點, 즉 心經正學의 內容에 일정한 時間과 空間을 부여하여 小宇宙의 世界를 設定하고, 抽象的인 心性의 要素를 感覺的인 人物로 形象化함으로써, 既存 理論에 作者의 體驗을 통한 意識과 創意力이 投影되어 小說 作品으로서 具體化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心性의 小說化로 整齊된 小說로서의 構造美를 갖춘 것이다.

둘째, 天君實錄은 忠臣型 人物과 奸臣型 人物의 對立, 葛藤에서 忠臣型 人物은 奸臣型 人物의 공격으로 궁지에 처했다가 힘겹게 이를 克服하는데, 여기서 兩類型 人物의 葛藤은 곧 性과 情의 葛藤에 譬喻되기 때문에 人間이 情을 억압하고 性을 회복하는 데는 그만한 역경과 진통이 따른다는 견해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실제적인 체험이든 상상적인 체험이든 간에, 일종의 체험을 作者가 作品에다가 小說 美學的으로 승화시켰다는 데에 중요한 意義가 있다.

즉 小說 內容에서 중요한 것은 忠臣型 人物이 奸臣型 人物을 마침내 제압할 수 있다는 決定論的 思考나 樂觀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性과 情의 葛藤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과, 性이 情을 억압하기 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要求된다는 사실을 心經의 論理에 譬喻하여 小說 美學的인 構造로 展開시켰다는 데에 文學的인 價値가 있다.

셋째, 天君實錄은 일종의 觀念小說이다. 創作의 意圖가 어디에 있었든, 또는 作者가 豫備 知識을 어디에서 얻어 왔든지 간에 作者는 人間 心理를 깊이 省察하고 解剖하여 마음의 行路를 구체적으로 形象化하였다. 忠臣型 人物이 奸臣型 人物과의 치열한 葛藤을 거쳐 결국 奸臣型 人物들을 制御함으로써 天君의 나라에 平和가 온다는 것은, 人間은 本能的 欲求와 理性 사이의 葛藤을 겪지 않을 수 없으며, 後者가 前者를 制御했을 때 비로소 마음에 平和가 온다는 心理學的인 省察을 보여준 데에서 古小說로서의 文學的인 價値는 더욱 높이 評價된다.⁵⁵⁾

네째 天君實錄을 爲始한 天君小說 作家群은 小說을 排擊하는 論者들과 金鰲新話, 洪吉同傳,⁵⁶⁾ 壬亂 後의 英雄小說, 英·正祖代를 前後한 作者, 年代 未詳의 一連의 小說을 創作한 作家群과의 中間에 位置한 儒學者로서 대부분이 官界에서 화려한 벼슬을 하다가 流配된 불우한 文人 政客들이다. 이는 곧 平民, 庶民의 專有物인 것처럼 認知되어 온 小說文學이 天君實錄을 비롯한 天君小說로 하여금 士大夫의 階層에서도 매우 중요한 關心事였다는 證據가 될 수 있으며, 이들 作家들은 小說을 排擊하는 儒學者들과 一般 他小說을 創作한 作家들의 中間에 위치하면서 小說과 儒學思想과의 調和라는 歷史的 意義를 갖고, 儒學者도 小說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길을 터 놓았다. 더구나 當時 小說 排擊論者들은 小說 文體도 問題視하였으나 그 內容이 淫談稗說과 男女期會란 점에서 더욱 排擊하였으니, 天君實錄을 爲始한 天君小說에서는 이를 克服하기 爲해 小說의 形式에다 淫談稗說이나 男女期會之詞를 가능한 除外시키고, 題材나 素材 기타 등장 인물을 모두 心性論에서 借用하여 儒學思想을 小說化한 點에서도 중요한 意義를 지니고 있다.

다섯째, 天君實錄을 읽음으로써 心經正學을 익히고 배우는 한편, 小說의 興味도 느낄 수 있어, 當時 小說을 排擊한 儒學者들에게 小說의 効用 價値를 일깨워 주었으며, 小說에 對한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 小說을 排擊한 儒學者들과 天君小說 以外의 小說 作家群과의 거리를 보다 좁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小說에 對한 文學的 價値의 認識을 점진적으로 變貌시킨 媒介의인 役割을 하게 되었다.⁵⁷⁾

55)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p. 192—193.

56)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 198 脚註 參照.

57) 金光淳, 天君小說研究(螢雪出版社, 1980) p. 199.

Ⅶ. 結 論

이상 本論에서 論述한 바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天君實錄의 作者로서 既往에 있었던 鄭昌翼所作說은 皮相的인 考究에 依한 誤謬이고, 小隱 柳致球의 作品임을 確認하였다.

둘째, 天君實錄의 作者로서 小隱 柳致球로 看做하고, 그의 生涯를 要約 說破하면서 儒者로서 一貫되는 그의 思想的인 傾向을 穿鑿하였다.

셋째, 主人公 天君은 心을 擬人하였으며, 天君 아래에 忠臣型의 人物과 奸臣型의 人物들이 매우 복잡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모두 心統性情에 關係되는 用語를 교묘히 擬人하여 小說의 人物로 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用語들을 擬人하여 心經의 論理를 흥미로운 小說의 構造에다 投影한 것으로서, 天君이 곧 心이니, 君子로서의 마음 가지는 方法 즉 心經正學을 說破하려는 作者意識의 志向을 考究 하였다.

넷째, 天君實錄의 文學的 價値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考察하였다.